

# 신자의 삶(직장)에 대한 교회의 역할: 상황과 대책 제안

## 서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크리스천 기업인 한 분의 이야기이다. 자기 교회 목사님이 악수하면서 “요즈음 힘들지요?”라고 인사말을 하길래 “예, 목사님 정말 힘이 듭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너무 당황하시더라는 것이다. 그저 인사말에 대한 대답으로 “괜찮습니다” 류의 대답을 예상했던 목사님으로서 당황할 만했다. 그러면서 그 분은 목회자들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너무 모른다고 아쉬워했다.

사실 교회(전통적인 의미의 모인 교회)에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다시 확인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의 생활에서 교회는 영적인 힘을 얻거나 쉼을 얻는 곳이기보다는 교인의 한 사람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하는 곳이 되었다. 교회를 통한 헌금과 헌신의 봉사는 지체된 성도들의 당연한

## 2 신자의 삶에 대한 교회의 역할

의무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회생활은 성도의 삶의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회의 역할은 그들의 삶이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아마도 이것이 현 시대의 교회가 개혁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새로운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특히 교회의 책임을 맡은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 1. 성도들의 삶의 현장

길거리에 오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붙들고 현재 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무어라고 대답할까?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은 여성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가정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나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은 예외없이 대다수가 그들의 직업과 관련된 일들을 언급할 것이다. 물론 가정도 중요한 삶의 현장이며 사실상 남자들이 가장으로서 가정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혼율이 높아가고 가정의 결속력이 예전같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가정의 중요성이나 이를 위한 남성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남자들에게 주된 삶의 현장은 역시 그가 일하고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일반 남성들에게 직업은 거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똑같은 질문을 크리스천들에게 던지면 무어라고 대답할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크리스천들의 경우는 가정 외에도 교회가 생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더라도 직업 현장의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이나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께 헌신하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크리스천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그들이 보내는 시간을 비교해보자. 아무리 교회생활에 충실한 성도들일지라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보내는 시간 이상으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지는 못한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지

언정 현실의 상황을 뒤바꿀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나 그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그들이 대체로 직업과 관련되는 것이 많다. 구체적으로 의식하거나 말로 표현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크리스천 직장인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할 수 있다. 세속사회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우선 시간사용에 따르는 어려움이다. 예배에 참석하거나 각종 교회의 모임이나 다른 신앙적인 모임에 참석하면 당연히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물론 그곳에 가서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을 피할 수는 없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경건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겪게 되는 갈등이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술좌석이나 기타 세속적인 문화에 쉽게 어울릴 수는 없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냥 끌려다니게 되는 경우는 죄책감으로 인한 심적인 고통이 있다. 종사하는 사업의 종류나 맡겨진 업무에 따라서는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역시 강하게 결단을 할 수도 있지만 마땅한 기준도 없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으므로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전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막연하게 전도의 사명을 인식하지만 실제로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니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성도들, 특히 크리스천 직장인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매일 매일을 보내고 있으며 그러한 현실을 뒤로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 2. 목회자들의 현실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을 영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목회자들은

#### 4 신자의 삶에 대한 교회의 역할

과연 이런 사실을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 실감하고 있을까? 실제로 이런 성도들의 현실을 실감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삶의 현장은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주로 교회의 건물이라는 영역으로 제한이 된 현장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곧 교회와 관련된 일로만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그 일에 헌신할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정작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심을 덜 갖게 되며 아예 그것들은 주님의 일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목회자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 양을 치라고 하셨던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의 모습인가? 이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목회와 성공적인 교회 경영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유진 피터슨은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종교적인 일이 목회자의 사역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성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 우리들의 사역은 종교적인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 있다.(Eugene H. Peterson, Under the Unpredictable Plant, Eerdmans, 1992, 132쪽)”

목회를 교회라는 조직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의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목회가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세워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대로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다.(고후1:24)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목회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

### 3. 새로운 목회를 위한 신학적인 고찰

목회신학의 변화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신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1) 교회의 정의

현재의 교회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보다 “교회는 어디 있는가?”라고 물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대답이 다르다. 주일아침이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을 때 교회는 교회의 건물 안에 있다.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교회 건물을 떠나 있는 월요일에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에도 여전히 교회 건물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틀린 대답이다. 텅 비어있는 교회의 건물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빈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이며 좀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이단적인 생각이다.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건물이 비어있는 동안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는 흩어져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영역에서 작은 교회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도들이 가정생활을 하는 곳이 흩어진 교회가 되며 크리스천 직업인들이 있는 곳이 바로 흩어진 교회가 된다. 이와 같이 교회를 ‘모인 교회(gathered church)’와 ‘흩어진 교회(scattered church)’로 이해하게 될 때 목회의 개념이 달라지며 목회자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 (2) 목회자의 역할

전통적으로 목회자는 사역자이며 성도들은 그 사역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에 맞지 않으며 성경적인 생각도 아니다.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나 평신도가 똑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벧전2:5,9) 사역자의 사명이 있다. 이와 같은 평신도 사역의 재발견은 교

## 6 신자의 삶에 대한 교회의 역할

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평신도는 사역자로서 교회 내에서 목회자를 돕는 동역자가 된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평신도 사역의 방향이었으며 모인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흩어진 교회의 사역을 생각하면 또 한번 변화가 필요하다. 흩어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는 평신도가 목회자를 돕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이들을 돕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4:11-12)” 즉 목회자들은 세상 속에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 4. 목회활동의 변화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도울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를 찾았으면 이제 목회사역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 (1) 설교

가장 먼저 변해야 할 중요한 영역은 역시 설교이다. 사실 성경 자체에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 우선 하나님의 이미지가 직업과 관련되어 있다. 왕, 목자, 토기장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비유들이 직업과 관련되어 있다. 목자, 일꾼, 장사꾼, 농부 등이 그것이다. 서신서를 보더라도 생활의 적용 편에는 반드시 직장에서의 생활 문제를 다루고 있다.(엡6:5-9, 골3:22-4:1, 살전4:11-12, 살후3:7-10, 딤후6:1-2약4:13-5:6, 벧전18-21 등) 이와 같이 직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물론 그렇지 않은 말씀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업의 현장과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성경 속에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바로 그것을 강단에서 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초로 설교하게 될 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 (2) 성인교육

설교를 통해 직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도전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직업인에게 필요한 성경적인 직업관이나 직업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가치관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직장생활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문제-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동료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들, 특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술좌석의 문제, 뇌물의 문제 등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3) 특별행사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함께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분위기를 통해 일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선교의 비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가 필요했듯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직업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회를 할 수도 있다. 요즘처럼 실업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때는 물론, 비리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 그것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직업을 위한 축제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기에 맡겨준 직업에 대한 헌신의 표현으로 직업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하나

## 8 신자의 삶에 대한 교회의 역할

님 앞에 드리는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청진기를,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디스크를, 목수는 망치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행사는 온 교회가 직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며 당사자들이 일터에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앞서 말한 직장인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마친 사람들을 일터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어쨌든 교회의 생활 속에서 세속 사회에 땀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사가 필요하다.

### (4) 심방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직장이나 사업장을 심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목회심방의 현장은 가정이다. 그나마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에 심방하는 경우는 낫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그저 주부들만이 있는 집만을 심방하게 되므로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심방에서 소외가 된다. 그러므로 심방의 목적을 살릴 뿐 아니라 직업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현장을 심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목회자들을 만나는 것도 새로운 체험이겠지만 목회자들이 직장에서 작업복을 입은 집사를 보거나 가운을 입은 장로를 보는 것도 새로운 체험이 된다.

## 5. 결론 - 어느 목회자의 경우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자콥슨 목사는 원래가 보험 세일즈하던 직장인이었다. 그가 보험영업사원으로 있었을 때 그의 삶의 현장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내 한 복판이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크리스천 여성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통해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결국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후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되었다. 신학교



에 들어온 이후로 그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신학적인 용어나 교회적인 용어로 변하게 되었으며 삶의 현장은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 이제 그는 그가 몸담고 있었던 직업의 현장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보험사원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문득 자신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동떨어져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자기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살았던 현장이었으며 그것이 주님이 성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현장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동안 자신의 목회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그의 관심사는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뿐이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콥슨 목사는 목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그 후로 그의 목회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설교가 달라졌다. 직업의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전하는 메시지로 변하게 되었다. 물론 교육 프로그램도 이런 각도에서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관심이나 비전이 교회 밖으로 확산이 되었다. 그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것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Steve Jacobsen, Heart to God hands to work, Alban Institute, 1997)

자콥슨 목사의 변화가 전통적인 의미의 목회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내 양을 치라”고 하셨던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인 것만은 분명하다.